

■ **부토 암살... 파키스탄 내전으로 가나**

“**무사라프 퇴진**” 시위 군중에 **경찰 발포**



암살직전의 부토. /파키스탄=로이터연합스

향의 시위 전국 확산...총기 난사·차량 방화 사실상 ‘무정부 상태’

베나지르 부토(54) 전 총리가 암살된 파키스탄에서 경찰이 분노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정국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자칫 내전으로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부토 암살 소식이 알려진 뒤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부토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총기를 난사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적어도 15명 이상이 사망했고 150대 이상의 자동차와 건물 수십 채가 불에 탔다고 현지 일간 ‘더 뉴스’가 전했다.

특히 부토의 고향인 신드주 하이데라바드에서는 페르베즈 무사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정부를 성토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급기야 28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처음으로 발포해 5명이 다쳤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경찰 관리인 압둘 카디르 솜모는 로이터통신에 “시위대의 폭력이 격화돼 발포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부상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암살 이후 전국에서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등 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사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하면서 총선 불참과 함께 무사라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부토 암살의 가장 유력한 배후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대상인 알-카에다나 탈레반 등 국제 무장단체가 부토 암살의 가장 유력한 배후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사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 정

부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은 부토의 암살이 울며 급격하게 악화된 파키스탄 정국 혼란의 연전선상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무사라프는 올 들어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이슬람 급진 세력인 ‘탈 마시지드(붉은사원)’를 무력 진압하는가 하면 헌정을 중단시킨 채 재선을 밀어붙이는 등의 무리수를 뒀었다.

또 무사라프는 비상사태 해제 이후에도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1월로 예정된 총선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도의 부정선거 우려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부토가 총선 연설 도중 피살됨에 따라 자연스레 의혹의 눈길이 무사라프까지 향하게 된 것이다. /연합스

부토 시신 고향마을로 운구

27일(현지시간) 테러범의 총탄에 사망한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시신이 고향마을로 향했다.

이슬라마바드 인근 군사도시인 라발핀디 종합병원에서 사망한 부토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밤 인근 차클라라 공군기지를 통해 그의 고향인 신드주(州) 라르카나로 운구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부토 전 총리의 장례식은 2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9년 이후 망명 중 부토 전 총리가 머물렀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도 그의 사망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졌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부토 전 총리가 총재로 있는 파키스탄인민당(PPP)의 중동 지역 대변인인 주베이트 바시르는 “아주 슬프다. 나의 자매가 죽었다”며 “오늘 사건은 파키스탄의 비극이며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 PPP UAE 지부 지도자인 모하메드 아르칸 파루키도 “도저히 아무 말도 못하겠다”며 울먹였다. /연합스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한 지지자가 27일 라호르에서 시위자들의 방화로 불타는 버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토 여사는 이날 라발핀디에서 자살공격으로 암살됐다. /AP연합스

외신들 “부토 암살 배우는 알 카에다 유력” 보도

베나지르 부토(54) 전 파키스탄 총리의 암살 배후로 많은 전문가들은 알-카에다를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대담하게 총을 쏘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암살 사건이 터진 직후 알-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겸 대변인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무스타파 아부 알-야지드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알-야지드는 이탈리아 민간통신사인 AKI와 전화통화

에서 “무자헤딘 척결을 공언했던, 가장 소중한 미국의 자산을 제거했다”고 말했다고 AKI가 웹사이트에서 보도했다.

그는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지난 10월 부토 살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AKI는 전했다.

CNN방송도 알 카에다와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배후의 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페르베즈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나 산하 기관들도 의심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연합스

정부 “테러 행위 규탄” 위로 성명 발표

정부는 파키스탄 야당 지도자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27일 선거운동 중 테러에 의해 사망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어떠한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또 “이번 사건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파키스탄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안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스

日 교수들도 학력위조

문부성 실태조사 48명 적발

올해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학력위조 사건이 일본 사회에서도 예외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대학을 상대로 교수들의 해외 박사학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48명이 가짜 학위를 제출해 임용, 승진 등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등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라며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이슬람 급진 세력인 ‘탈 마시지드(붉은사원)’를 무력 진압하는가 하면 헌정을 중단시킨 채 재선을 밀어붙이는 등의 무리수를 뒀었다.

또 무사라프는 비상사태 해제 이후에도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1월로 예정된 총선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도의 부정선거 우려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부토가 총선 연설 도중 피살됨에 따라 자연스레 의혹의 눈길이 무사라프까지 향하게 된 것이다. /연합스

하고 있는 단체에서 받은 가짜 학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학위 교수를 적발한 학교는 모두 43개교였다. 이들 가운데 7개교(8명)는 국립대로 드러나 이들 대학조차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위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해당 학위가 없었을 경우엔 임용이나 승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학원장이나 홈페이지에 가짜 학위를 기록, 승진 심사 등에 간접 활용된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보고 있다. /연합스

“독도는 한국땅” 미 오리건주 흡피

日 정부 항의로 열람 중지

미국 오리건주가 공식 개설한 홈페이지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이 한글로 게재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의 항의로 열람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은 오리건주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방법 안내 사이트에 포함돼 있었다.

안내 사이트에 게재된 두개의 삽화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내용이 한글로 표시돼 있었다. 한 삽화는 한 남성이 과속 운전 자제를 당부하는 ‘천천히(SLOW)’란 표시의 경고판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이 남성이 착용한 상의에는 한글로 “독도는 한국땅” “독도사랑”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다른 삽화는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차량 두대가 등장한다. 앞선 차량에는 “독도는”이라는 글씨가, 뒷 차량에는 “한국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삽화 하단에는 ‘독도사랑모임’이라는 단체 명도 명시돼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는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오리건주에 유감을 표시했고 오리건주는 최근 열람 중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스

간경화, 원상회복 가능하다

심한 음주 또는 간염에 의해 발생하는 간경화의 진행을 차단하고 원상회복까지 가능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의 마티나 버크 박사는 간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부위에 반흔조직을 형성하는 단백질(RSK)의 활동을 억제하면 간손상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사실이 쥐실험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손상된 부위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인터넛판이 27일 보도했다.

버크 박사는 심한 간염유증(간경화)을 유발시킨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RSK단백질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주입한 결과, 이 화학물질이 주입된 쥐들은 간경화 진행이 멈춘 반면 대조군 쥐들은 간경화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버크 박사는 쥐이는 실험을 통해 이미 손상된 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쥐실험 결과지만 사람에게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스

Advertisement for S-Line health products. Text: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Is your S-line healthy?). Includes a list of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Samsung Electronics. Text: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Domestic sales 1st!! Consumer satisfaction 1st!!). Promotes Samsung's "High-end technology" and "Next-generation sound storage device".